

# 소쉬르 · 피스의 기호론과 바르트의 신화분석 영화 ‘베테랑’을 중심으로

김만기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Semiotics analysis of Saussure, Peirce, and Myth of Barthes Focused on the film ‘Veteran’

Man-Ki Kim

Dept. of Ads & PR,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영화‘베테랑’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이다. 영화 베테랑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문제점들을 기호인 영화로 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호이론으로 그 영화가 지시하고자하는 심층적 의미와 우리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동시대 학자인 소쉬르의 기호론인 기표와 기의, 피스의 기호학인 도상, 지표, 상징, 그리고 바르트의 신화론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화 ‘베테랑’에서 감독이 생각하는 우리사회의 저 밖에 지시대상들을 기표인 배우들의 역할인 함축적 의미로 대체시켰다. 따라서 지금 우리사회가 바라는 그 이상 것인 신화로 승화 시켰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현실상 올바른 이념인 이데올로기의 과정으로 권선징악과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이 영화 ‘베테랑의 기호’가 해석한 것처럼 재벌 같은 특정집단을 위한 사회보다 더불어 같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주제어** : 기호, 기의와 기표, 지시 의미, 함축의미, 신화, 이데올로기, 영화베테랑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semiotic analysis with a focus on film 'Veteran'. The film is to the reproduced movie in the sign for social problems facing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ed the implication is that referents and presents of the film to be directed by semiotic. The methodology is the study that the Saussure's semiology as a signifier and signified, and Peirce's semiotic as iconic, index, symbols in contemporary scholars. The Semiotics is analyzed on the basis myth and ideology of Barth. The film director thinks the 'veteran' was replaced by the implications of the role of the actor as a signifier that is the out referent of our society. Thus, the film was sublimated into more than the real as myth in our society desires. So, our society is to implement the right ideas as ideologies process. that is, reward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evil, and eventually implement justice socie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going to create a society that is not for specific groups tycoon, is for mutual dependence like the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the film veteran.

**Key Words** : Semiotics, signifier, signified, denotation, connotation, myth, ideology, film ‘Veteran’

\* 본 논문은 201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 12 September 2015, Revised 25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Man-Ki Kim

(Dept. of Ads & PR, Namseoul University)

Email: kapr@n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사용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거나 묘사하거나 규정한다[1,2]. 이러한 과정에는 특정한 관습으로 주어진 말이나 시각 미디어인 영화 등이 재현 체계가 동원된다. 영화 '베테랑'은 재현한 이미지의 텍스트와 영상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관행관계를 함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시대상(referent)이 만들어낸 말이나 이미지가 우리 주변세계의 복합적인 의미를 깨달게 한다.

이론 복합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기호들의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화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우리생활의 사고방식(thinking way), 삶의 방법(way of life), 취향(taste) 등 모두가 기호(sign)와 함께한 실천행위(signifying practices)들이다. 기호란 어떤 점이나 어떤 자질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대신하여 나타내 주는 어떤 것이다[3].

이처럼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기호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듯 기호들이 인간의 삶과 깊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호학은 철학과 심리학과 함께 3대 기본학문으로,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화매체의 장르가 내포하고 있는 기호적 심층의미파악으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적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들은 서사구조와 의미구조들을 밝혀낸다. 즉,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석은 바로 기호학 분석이다. 기호학 분석은 텍스트의 담론, 서사, 의미, 신화(myth)와 이데올로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들을 검토한다. 또한 다양한 기호학적 분석들을 통해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함축하는 바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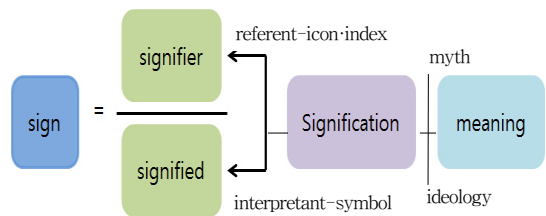
기호는 만들어질 때 이미 여러 제반 요소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의미나 개념이 반영되어 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학은 사회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사

회나 개인들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특히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의 숨겨진 의미구조, 이데올로기 구조를 밝히고자한다. 본 연구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나 해석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 보다 생동감과 해석의 즐거움을 갖고자 한다.

## 3.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기호학이론은 체계화 시킨 두 학자가 있다. 한 명은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이며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의 철학자 퍼스이다. 기호학자들은 소쉬르의 기호학을 '의미소통을 위한 관습 체계의 이론'이라고 본다면 퍼스의 기호학은 '의미작용의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5, 6].

이것이 바로 기호표현(기표,signifier)과 기호내용(기의,signified)은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다.



[Fig. 1] 2 structure of the semiology of Saussure & Peirce, myth of Barthes, Jeong Soon Park, 2009, reconstructed from p.105, 110

소쉬르는 기호를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의 두 요소가 결합된 상호작용(signification)으로 의미를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기호표현(기표, signifier)은 '물리적 실체'로 '소리', 글자, 영상 등과 같은 것이다. 기호내용(기의, signified)은 기호가 대변하는 '정신적 개념(mental concept)을 말한다. 즉, 기호표현은 의미의 운반체이며 기호내용은 의미나 뜻이다.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이 결합되는 과정의 의미작용 1차 과정에서 지시의미(denotation)발생된다. 이 지시의미는 누구나 아는 객관적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실체에 대한 정신적 개념은 의미작용으로 2차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 2차적 의미는 자의적이며 다의적인 의미로 주관적인 의미가 많다.

한편, 피스는 철학자로서 기호학의 관심 사항은 인간의 사유, 이해 그리고 지식과 진리추구에 사용되는 논리적 측면의 기호의 과학화 구축한다. 피스는 삼항적(triadic structure) 관계에서 준 필수적, 공식적인 기호원리를 밝힌다. 기호의 세 분류 삼항적 관계는 유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이다.

따라서 기호현상의 세 요소는 기호(sign/representant), 해석체(interpretant), 지시대상(object)으로 표현한다. 소쉬르와 피스의 두 이론을 결합하여 보면, 소쉬르의 '기호'는 피스의 표현체이며, 소쉬르의 '기호표현(기표, signifier/sr)'이며, 소쉬르의 기호내용(기의, signified/sd)으로 피스의 해석체에 해당된다[7].

기호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기호는 또 다른 기호를 불러일으키는 '무한정한 기호과정(unlimited semiosis)'를 갖는다. 이를 바르트(Roland Barthes)는 1단계 의미작용으로 피스의 해석체와 유사하며, 2단계 의미작용에서 지시의미는 함축의미와 메타언어와 신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해석체(기호 n)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 8].

바르트는 1차 기호 의미작용의 기표/기호표현(대상체) 기의/기호내용(해석체)가 결합하여 기호(표현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의미작용이 일어난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2차 기호의미작용의 두 가지도 되어 있다. 하나는 함축의미(connotation)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인 메타언어로 신화(myth)와 이데올로기 질서이다. 바르트는 신화를 '함축 의미의 체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함축의미의 연쇄고리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신화를 만들 수 있다[4]. 이런 과정을 바르트는 "기호가 수용자의 감정과 문화의 가치와 만날 때 그 상호과정에 의해 의미가 창출되는데 이것이 함축적 의미(connotation)이며, 신화(myth)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신화란 감추어진 규칙, 부호, 관행을 통해 특정한 사회집단이 창출한 의미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화는 사회 전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데올로기로 전환된다"라고 한다[9, 10].

오늘날 바르트가 밝힌 신화는 '커뮤니케이션 체제'이고, '의미작용의 한 양태, 즉 형이다', '담론 이 옮기는 것 이면 무엇이든 신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8].

기호학은 영화에서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지시대상체, 도상적, 지표적, 상징적 기호체들이 사용된다. 영화가 취하는 코드와 텍스트는 심미적이다. 3차원의 물체들이 2

차원 평면으로 옮겨놓은 사진 이미지의 존재론이 영화의 기호학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다[11]. 영화가 언어로서 기표와 기의사의 관계는 일상언어에 존재하는 기표-기의의 사이의 관계와 같지 않다. 영화는 현실 세계의 조각들의 모임을 그것의 기본 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속에서 기표의 의미가 한 영화의 체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복제된 현실과 저 밖의 현실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다. 영화는 세계를 담론의 변환시킨다. 그래서 영화는 단순한 복제만도 아니다. 이 담론의 최소 단위를 화면 shot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화면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언명이나 언급 같은 것이다 [12].

영화가 영화감상자에게 일으키는 사실 효과는 놀라운 데가 있다. 방브니스트(Émile Benveniste)의 주체이론에 의하면 영화 감상자는 영화 제작자의 위치에서 앉아서 영화 제작자가 의도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인다.

#### 4. 영화 '베테랑' 즐거리

서도철 형사(황정민) 사건을 맡으며 알게 된 화물트럭 기사 정웅인이 신진기업에게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항의하러 아들과 같이 갔는데,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다. 그러다가 재벌2세 조태오(유아인)이 실수로 정웅인을 뇌진탕으로 혼수상태에 빠트리지만 그것을 계단에서 혼자 투신해 죽었다고 덮어씌운다. 그리고 최상무(유해진)이 거짓 자수를 하고, 재벌2세 조태오(유아인)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 마약파티를 여는데 서도철 형사(황정민)이 도심추격을 하며 조태오(유아인)을 잡는다 [13, 14]. 영화의 시작 전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회장은, 뉴스에서 흔히 보던, "휠체어 타고 검찰 출두 뒤 병원에 입원하기"를 시도 한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조회장을 대신하여, 후처가 낳은 막내 조태오가 설정된다. 조태오는 마약과 폭행, 여자문제로 사고를 쳐대는 못된 재벌3세의 모습과, 열등감 속에서, 조회장과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야심 있는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 주려한다. 외사촌형인 최 상무의 보좌를 받는다. 한편, 최 상무는 죽은 자신의 아버지가 조 회장에게 했던 것처럼, 고종사촌 조태오의 온갖 못 된 것들을 뒤처리 해

가며, 머슴처럼 살고 있다. 좋은 싫든 조태오와는 운명공동체로 묶여서, 신진그룹 내에서 함께 생존본능을 발휘해가며 신진물산을 경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의 어느 날, 신진물산의 본사 건물에서 협력업체 계약직 사원이 투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영화는 이 투신 사건을 파헤치려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과 그의 베테랑 팀원들이, 조 회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사건을 덮으려는 조태오와 최 상무 팀과 대립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언젠가 뉴스에서 한번쯤 본 것만 같은 있을법한 재벌가의 이야기에, 류승완 감독 특유의 정말 리얼한 호쾌한 액션 영화 베테랑은 2015년 8월 5일에 개봉하였다[13,14].

## 5. 분석결과

### 5.1 영화 '베테랑'에서 기호와 지시대상체 관계

영화 '베테랑' 재현과 지시대상체와 기호간에 가능성의 유사성, 사실적 존재의 지표, 그리고 존재규칙인 상징으로 퍼스의 기호의 3항 분류체계가 확증된다. 이를 위해 류승완 감독을 영화와 관련된 사례의 모티브를 찾기 위해 3년을 조사했다고 한다. ① 갑질하는 재벌 3세 쫓는 경찰의 활약과 권력, ② 재벌 갑질 사건 실제로 여러 번 발생, ③ 기저귀 차고 임원회의 참여 등, 기호인 영화 '베테랑'으로 재현(representation)된 것이다.

### 5.2 영화 '베테랑' 기호의미작용과 신화,

#### 이데올로기 분석

영화 '베테랑' 언어에서 1차적 의미작용인 외시적 · 2차적 함축의미는 안아 무인자, 가오 맨이다. 재벌의 외사촌형인 최상무(유해진)는 신진그룹의 후계구도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서 최상무는, 고종사촌 조태오의 온갖 못 된 것들을 뒤처리 해가며, 머슴처럼 살고 있는 역할이다. 조태오와 운명공동체로 묶여서, 신진그룹 내에서 함께 생존본능을 발휘해가며 신진물산을 경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무의 역할 함축적 의미는 출세를 위한 제2인 역할로 아부자이다. 미스봉(장윤주)는 위장 전문가로 의리 협조자 역할이고, 배기사(정웅인)는 일용직 노동자로 '갑질'의 '을'역할로 서러운 우리 사회의 의미(지시의미)로 보는 영화배우들의 역할(캐스트)인 실

천행위(signifying practices)를 보면, 서도철 형사(황정민)는 형사의 끈질긴 근성으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를 추적자로 의리와 정의사회 구현한다. 서도철의 2차적 의미 작용으로 함축의미는 행동파로 의리·정의사회구현 역할이다. 신진그룹 재벌 2세인 조태오 (유아인)은 마약과 폭행, 광고모델과의 성도착인자로, 그리고 재벌로서 거래처에서 일한 배기사에 대한 갑질 역할이다.

영화 '베테랑' 언어에서 1차적 의미작용인 외시적 의미로 보는 영화배우들의 역할인 실천행위(signifying practices)를 보면, 서도철 형사(황정민)는 형사의 끈질긴 근성으로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를 추적자로 의리와 정의사회 구현한다. 서도철의 2차적 의미 작용으로 함축의미는 행동파로 의리·정의사회구현 역할이다. 신진그룹 재벌 2세인 조태오 (유아인)은 마약과 폭행, 광고모델과의 성도착인자로, 그리고 재벌로서 거래처에서 일한 배기사에 대한 갑질 역할이다. 2차적 함축의미는 안아무인자, 가오 맨이다. 재벌의 외사촌형인 최상무(유해진)는 신진그룹의 후계구도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최상무는 고종사촌 조태오의 온갖 못 된 것들을 뒤처리 해가며, 머슴처럼 살고 있는 역할이다. 조태오와 운명공동체로 묶여서, 신진그룹 내에서 함께 생존본능을 발휘해가며 신진물산을 경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무의 역할 함축적 의미는 출세를 위한 제2인 역할로 아부자이다. 미스봉(장윤주)는 위장 전문가로 의리 협조자 역할이고, 배기사(정웅인)는 일용직 노동자로 '갑질'의 '을'역할로 서러운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베테랑'에서 서도철과 조태오의 최후 격돌지인 명동 한복판(실제 청주시 거리장면)은 외시적 의미 유상기호이다.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대중의 기대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1,2]. 이는 재현단계인 카메라의 기계적 과정으로 인 간적 관계를 재현하고자 하는 거리이다. 이 명동거리의 피사체 기표인 기호표현(통합체의 구성단위)에서 감독과 미술감독 그리고 촬영자의 기획의도가 함축된 카메라 초점, 노출, 앵글각도 등에서 나온 인간적 관여 내용이다. 즉, 액션 시퀀스의 실마리는 '따귀'였다. 류승완 감독은 이 싸움이 "조태오와 서도철만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는 싸움"이었으면 했다. 그리고 나쁜 놈을 징벌하는 데 감정을 모으는 통쾌한 장면이다.

이 영화의 신화는 우리사회에 주어진 문화속에서 서

민들의 감정이 그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신화는 우리사회 재벌과 회하위집단의 특수사회 관습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신화와 이데올로기가 바로 우리사회의 정의사회구현이며, 권선징악, 갑질억합, 물질주의 권력남용, 평범한 시민상을 창출하고 있다.

영화'베테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재벌들의2,3세대의 고용노동자에 대한 행포와 재판부 실행선고와 사회봉사 등 우리사회에 감추어진 규칙과 관행을 통해 재벌과 권력의 특정 사회집단에 창출된 의미체계이다. 이처럼 영화 '베테랑'은 문화적·역사적인 특수성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개념으로 작용됨으로써 신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 사회의 특정계층, 즉 재벌 2, 3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당연시됨으로써 이데올로기로 전환되고 있다. 영화 '베테랑'은 유상기호(iconic)으로서 높은 기호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 관람자들은 보통 영화 시퀀스가 나타내는 부가적인 함축적 의미(connotation)를 객관적인 지시적인 외시미(denotation)로 파악하게 된다. 영화 '베테랑'유상기호(iconic)인 시퀀스의 지시대상과 시각적인 이미지가 유사하고 이 같은 유사성은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게 만든다. 즉, 재벌 2세 조태오 갑질 행동이나 서도철 형사의 정의사회 구현으로 죄는 결코 우리사회 용납되지 않는다는 '권선징악'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언어 같은 자의적 기호가 갖는 힘은 기호표현과 기호내용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나오지만 영화 필름이 갖는 힘은 그와 같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15].

영화 '베테랑'은 실제와 닮은 유상기호의 함축적의미는 '실제'보다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우리사회 관습 규칙에 따라서 영화제작자들의 기술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졌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과 현실세계(hyperreality world)가 되었다. 배우 황정민과 유아인, 유해진 등의 영화속의 시퀀스는 어떤 측면에서 실제 이들 배우들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배우들의 시퀀스나 시각적 이미지는 '실제' 이들의 배우가 아니라 기호표현인 기표(signifier)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기호표현(기표)인 이들 배우들은 영화의 지시대상체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다. 영화 '베테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표현 배우들은 그것의 지시의미는 동일하겠지만 그것의 함축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따라 선택된 기호표현(기표)형식의 차이 때문이다[Fig. 1].

<Table 1> Analysis of signification on mythology and ideology for Film Veteran'

Primary signification- denotation: Signifier(icon & index)	Secondary signification connotation: Signified(symbol)	myth:ideology
Seodo-cheol (actor, Hwang Jeong-min) Detective crime tracking	actionist, fidelity, justice	<myth> ·Assaulted and one drug Conglomerates must also be punished ·Track all the way to a conglomerate committed a bad thing
Joe tae-oh (actor, Yu ah-in)conglomerat erateur Tycoon 2 years: drugs and violence, Woman with scandal	Embrace unattended,bluffer (かお[顔] filmography)	·Tissue culture systems and Corruption ·The role of Flattery to get ahead ·Social workers unfairly treated and Unjust society
Choi Managing Director(actor,Yu hae-jin(2 Factor role)	Flattery for success and life	↓ <ideology>
Miss Bong(actor, Jang Yoon-ju) Camouflage professional	fidelity, Cooperation	·Rewarding the good and punishing the evil ·Materialism ·Defining social implementation,
Bae driver (actor Jung Woong-in)	Unfair fire Gap between Eul Trading handcuffs	·Folks life ·Abuse of power, gapjil role

영화'베테랑'이 신화와 이데올로기로 우리사회에 던져 준 교훈은 재벌들의 정경유착으로 부와 행포, 그리고 권력은 권선징악으로 정의사회 구축이다. 또한 영화에서 지시대상체인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그 상황이 오버랩 될 것이고 그것이 관람자들에게는 오버랩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한 대로, 영화 '베테랑' 신화는 '커뮤니케이션 체제'이고, '의미작용의 한 형태'이고 오늘 사회의 메타 담론(meta-discourse)이다.

###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 REFERENCES

- [1] Marita Sturken & Lisa Cartwright. "Practices of Loo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2, 14, 2009.
- [2] Marita Sturken & Lisa Cartwright. "Practices of Loo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9, 윤태진·허현주·문경원 옮김, "영상문화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p. 10, 2009.
- [3] Jeong-Soon Park, "Advertising semiotics", Communication Books, 2007, p.17 quoted in Umberto Eco (in 'social life as a sign system' in structuralism: an introduction, paldin press, Oxford, 1973).
- [4] Gyeong-Yong Kim, "What is semiotics?" Minumsa Co., p.11, 168, 238, 1995.
- [5] Jeong-Soon Park, "Media Semiotics", Nanam Publisher, 2008.
- [6] Jeong-Soon Park, "Media Semiotics, Communication Books, 2009.
- [7] Guiraud, Pierre, "Semiolog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5.
- [8] Roland Barthes. "Mythology, translated by Annette Lavers, N.Y. : Hill and Wang, p.109, 1972.
- [9] Man-Ki Kim, "Im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Korea Research Information Co., 2008
- [10] Man-Ki Kim, "Political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 451, 2012.
- [11] Wollen, Peter, "Signs and meaning in the cinema," bloomington: In diana university press, 1972.
- [12] Metz, Christian, "Film Language : A Semiotic of the Cinema", (trans. Michael Taylo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13] [http://www.cine21.com/news/view/group/M201/mag\\_id/](http://www.cine21.com/news/view/group/M201/mag_id/)
- [14] <http://www.kin.naver.com/qna/detail YWM656RI>
- [15] James Monaco, "How to Read a Fil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128. 1977.

## 김 만 기(Kim, Man Ki)



- 198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영 어과(문학사)
- 1995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정치학석사)
- 2003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정치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2015년 5월 ~ 현재 : 스마트융합전국연합공동대표, 한국네 일융합 학회 이사장
- 관심분야 : 정치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와 기호, 신문방송
- E-Mail : kapr@hanmail.net